

Yeosu Web Contents

2024년 06월 13일 03시 01분



목차

목차	2
덕양5리	3
마을유래(□□)	3
지명유래(□□□□)	3
내기(□□)	3
흑산(□□)	3
가산(□□)	3

대포1리	대포2리	대포3리	대포4리	덕양1리
덕양2리	덕양3리	덕양4리	덕양5리	덕양6리
관기1리	관기2리	관기3리	복산1리	복산2리
복산3리	복산4리	복산5리	복산6리	봉두1리
봉두2리	봉두3리	사곡1리	사곡2리	사곡3리
사곡4리	죽림(1~17리)	현천1리	현천2리	현천3리

마을유래(☒☒)

이 마을이 형성된 연대와 입향시조는 알수 없으나 구전되어온 바에 의하면 충북 단양(☒☒) 땅에 살던 단양우씨(☒☒☒☒) 일가가 이곳에 제일 먼저 와 살았고 그다음 파평윤씨(☒☒☒☒) 일가가 내기마을로 창원황씨(☒☒☒☒)가 흑산마을로 김영김씨(☒☒☒☒)가 가산마을로 들어와 각각 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.

지명유래(☒☒☒☒)

📍 내기(☒☒)

옛날부터 역촌(☒☒)이나 관촌(☒☒)으로 불리어 왔다. 역촌이나 관촌이란 말은 옛날 교통이 불편했던 시절에 관원들의 내왕을 돕기 위해서 객사(☒☒)나 마필(☒☒)이 준비되어 있는 곳을 역참(☒☒)이라 했고 또 압행어사들의 출도에 동원되기 위한 역졸들이 집단적으로 사는 마을을 관촌이라고했다.

그런데 이 마을은 옛날 여수에서 순천으로 가기 위해 여수의 민드레미재를 넘어 쌍봉의 무상원(☒☒☒)을 지나 이 덕양역(☒☒)을 거쳐 사곡(☒☒)을 지나 순천 해룡면(☒☒☒)으로 빠지는 일반역이 아니었나 생각된다.참조 문헌에 보면 이 덕양역은 전북의 오수(☒☒) 가도에 속하는 역(☒)으로만 기록되어 있다.

물론 이 덕양역은 지금의 세동(☒☒)에 있는 덕양역(☒☒☒)이 아니고 옛날의 내기마을이 덕양역이었다는 것을 구별해야 할 것이다.

그리고 이 마을이 언제부터 내기로 불리게 됐느냐 하면 아마도 한일합병 뒤 옛날의 역촌들이 없어짐에 따라서 이 마을이 덕양 여러마을의 중심지라는 뜻에서 안내(☒)자와 터기(☒)자를 써기 내기(☒☒)라고 부르지 않았나 생각된다.

📍 흑산(☒☒)

구전되어온 바에 의하면 옛날 이 마을뒤에 울창한 숲이 있어 숲이 푸르다 못해 오히려 검게 보인다고 해서 검을흑(☒)자와 뫼산(☒)자를 써서 흑산이라고 불은 것이 동리의 이름이 되었다고 한다.

📍 가산(☒☒)



이 마을은 국가지원지방도 22호선이 달리는 광대골재임구의 좌측에 있는데 서쪽을 향해 산비탈에 계단식으로 자리잡고 있다. 이 마을이 가산(가산)으로 이름을 짓게된 것은 남쪽은 울창한 숲이요 서쪽은 새가 나는 것 같은 현상이며 그 아래 그림같은 들판이 아름답게 보여 아름다울가(가)자와 뒀산(가)자를 써서 가산이라 불렀다고 전하여 지고 있다.

COPYRIGHT © YEOSU-CITY. ALL RIGHTS RESERVED.

Yeosu Web Contents

